

제57회 이사회 의사록

1. 회의일시 : 2019.12.30(월) 10:30 ~
2. 회의장소 : 드림파크문화재단 회의실
3. 출석임원 : 6명
(1) 박광철 이사 (2) 김미화 이사 (3) 이기호 이사 (4) 진선호 이사
(5) 장정구 이사 (6) 성지원 이사
4. 결석임원 : 0명
5. 배 석 자 : 사무국장 등 직원 13명
6. 부의안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안자	제안부서	의결내용
제2019-12호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사무국장	사무국	심의의결
제2019-13호	규정(인사, 직제, 보수)개정 (안)	사무국장	사무국	심의의결

7. 회의 주요내용(요약)

- 의안 제2019-12호 ⇒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심의사항 ⇒ “원안의결”
- 의안 제2019-13호 ⇒ 신입이사(1명) 선출 : 심의사항 ⇒ “원안의결”
 - 신입이사 전병성 선임

8. 기록자 : 송 용 원

위 결의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서명 또는 날인 함.

2019. 12. 30.(월).

이 사 장 박 광 칠 ①

이 사 성 지 원 ①

이 사 김 미 화 ①

이 사 장 정 구 ①

이 사 이 기 호 ①

이 사 진 선 호 ①

감 사 권 승 희 ①

제567회 이사회 회의전말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이사장	<p>○ 재적이사 총 6분 중 참석이사 6분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부터 드림파크 문화재단 제57회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p> <p><의사봉 3타></p> <p>사전에 인사 말씀을 드려서 생략하고, 금일 안건은 심의 안건 2건입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제2019-12호, 2020년 수입 및 지출 예산(안)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p> <p><의사봉 3타></p> <p>사무국장은 나와서 2020년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p>
사무국장	<p>○ 사무국장입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골자부터 말씀드리면 박스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경우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2.8% 인상 범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상박하후 개념에서 보직자는 기본연봉의 2.5%, 그리고 비보직자는 3.0%를 인상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시간의 축소 부분에 있어서 현행 20시간에서 10시간으로 축소하고, 축소만큼 기본급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사무국 운영비의 경우는 올해가 예산이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운영비를 27.5% 축소 편성하였고, 일반 운영비 축소와 더불어서 업무추진비도 5.4% 축소가 되었습니다. 코스</p>

발 언 자	발 언 내 용
	<p>단 운영비도 사업비 증가와 연계해서 3.8%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비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는 올해와 같이 성과급을 1인당 10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p> <p>그러면 2020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맨 밑에 박스에 보시면 전체 사업비는 내년도에 0.4%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자체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고, 위탁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먼저 녹색 숲 조성 관리는 야생화 단지 개발로 인해서 13.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녹색사업에서는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캠핑장 수목 식재 공사나 승마장 예·제초 공사나 일회성이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편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사업의 경우에도 세 가지 사업 모두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코스 관리 사업의 경우는 골프장 코스 관리 용역이 5.1%가 증가하였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p> <p>사업별로 보다 더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자체 사업 추진 계획으로 사무국 운영 사업에 있어서는 고유목적사업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은 두 가지 유형인데 지역공동체 복지사업과 지역문화 진흥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분야 혁신방안으로는 공사와의 협업 사항으로써 숲 나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자체 신규 수익사업으로는 대외 기관과의 제휴협력사업과 일반시민의 기부참여 확대</p>

발 언 자	발 언 내 용
	<p>를 위한 기부 운영 시스템을 구축·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정과 전문건설업 등록을 통한 외부 수주 참여토록 하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부설 직업학교를 개설하는 등의 다양한 수익 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제시스템을 본격 시행하고,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매뉴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p> <p>그다음 장입니다. 코스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먼저 친환경 골프장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골프장 잔디에 대한 미생물 연구를 계속 추진하고, 2020년 친환경 골프장 베스트10에 재선정되도록 노력하며, 내수 체계개선을 위한 잔디 생육을 최적화해 나가겠습니다. 골프장 조경 관리에서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p> <p>다음 장입니다. 위탁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 숲 조성 관리에 있어서는 야생화단지에 대한 보안 식재와 양묘장, 그리고 양묘온실에 대한 운영 관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화단지 상시 개방과 관련해서는 내년 4월에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서 개방을 하고, 관광객 볼거리 확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p>
진선호 이사	○ 아니, 다음 장, 다음 장 하는데 어디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안 맞아.
사무국장	○ 지금 6페이지입니다.
진선호 이사	○ 6페이지?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사무국장	<p>○ 예.</p> <p>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p> <p>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립 종료 후에 안정화 기간에 있는 제2매립장의 수림대 조성에 있어서는 그 8단 사면에 교목을 이식하고 밀식 수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계별 간벌을 추진하고 간벌·수목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법을 발굴·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일정하게 한계도 있습니다. 즉, 관리하는 수목과 녹지면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은 한정적이고, 고령의 지역주민 고용으로 인해서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녹지관리를 집중관리지역과 보통관리지역으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p> <p>다음 장입니다. 제1매립장 수목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태풍피해 예방을 위한 전정 작업을 하고, 주민체육공원 수림대 등 화재예방을 위한 고사지를 정리하고,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를 위해서 연 3회 이상 예초를 시행하겠습니다. 제1매립장 조경 보안식재와 관련해서는 관목원의 공간면적을 확대하고, 지반 침하 및 가스 누출에 대한 수목 고사율에 대비해서 식재 침하를 확충하고, 골프장 특성화 식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그다음 장입니다. 가을 나들이 행사와 관련해서는 환경 주제의 콘텐츠를 추가 발굴하고, 방문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업무개선사항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문화교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총 9개 강좌를 운영할</p>

발 언 자	발 언 내 용
	<p>예정으로써 요가와 캘리그래피, 연필 스케치, 야생화 단지 가꾸기와 1일 무료 특별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또한 마을봉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시민봉사교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p> <p>그다음 장입니다. 시민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총 8개 면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와 더불어서 제반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FC와 야구교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유소년 체육시설 모집지역을 확대해서 현행 *** 서부지역에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p> <p>다음 장입니다. 드림파크CC 코스관리와 관련해서는 친환경 관리를 통한 최적의 잔디 컨디션을 유지토록 하고, 조화로운 조경관리 및 코스개선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침하 등에 대비한 골프코스 개선 방안으로는 폐유에 대한 배수불량지 매각로 공사와 그리고 부동침하에 대비해서 잔디 *** 지속적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p> <p>다음은 2020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총괄 목록에서 보셨듯이 수입예산은 131억인데 이 중에서 재단 자체수입은 16억입니다. 사무국 수입은 약 13억이고요. 그리고 코스단 수입은 약 4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순 위탁사업비기 때문에 나머지 115억은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p> <p>그다음 장입니다. 지출예산에 대해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사무국 운영비는 11억을 편성하였고, 코스단 운</p>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이사장	<p>영비는 3억, 그리고 목적사업비는 1억 3,000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나머지는 위탁사업비를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p> <p>그다음 보시면 총괄표가 있고요. 이하 예산은 총괄표와 그리고 지금 붙임으로 되어 있는 세부예산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p> <p>○ 지금 사무국장께서 2020년도 사업계획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보고한 내용 중에 8쪽을 한번 보시면, 문화사업에 드림파크 문화축제 개최가 7억 7,6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건은 상생기금 7억 3,200만 원인데 지난 12월 20일 개최된 드림파크 상생협의회에서 주민위원 측의 제안으로 이 사업은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문화사업들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도 주민위원 측에서 보류하고자 하였으나 그런 것들은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하고, 다만 이 사업은 보류가 되었으나 향후에 주민대표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다른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였으나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직접적인 영향권 지역주민들의 복지 또는 기타사업에 관련된 사업이라서 일단 예산(안)은 이것을 통과시키고, 향후에 조정이 조금 될 수,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예측하기에는 개인의견으로는 약간의 사업조정이 다른 주민 분들께서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정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보고를 드리고, 이 예산(안)은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 이것을 포함하여 다</p>

발 언 자	발 언 내 용
<p>성지원 이사 이사장</p>	<p>른 질의하실 사항이나 또는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업이 보류된 사유가 뭔가요? ○ 당초에 상생협의회에서 이사뿐만이 아니라 공사에서 하고 있는 문화조경처의 모든 사업을 주민위원들이 전체를 하지 말고 주민위원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제 기억으로 작년 7월경부터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12월까지 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내년 사업예산을 확정해야 되는데 주민위원 측에서 좋은 사업을 내면 그걸 반영해서 충분히 조정할 수가 있으나, 12월 20일 상생협의회 때까지 주민협의체 측에서 주민위원이 이걸 내지를 않아서 일단 당시에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습시다만, 다른 사업은 문화조경처나 이 재단에 드림과 크문화재단에 직결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논란 끝에 원안이 통과됐고, 가을나들이 문화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시 조정해보자 하고 합의해서 갈등이 좀 그동안 수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위원 측의 의견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많이 수용해서 하는데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자금이. 그렇다고 주민위원 측에서 제가 보기에 다른 사업을 내기가 마땅한 게, 현금은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려워서 이 문화축제 이것은 이 안에는 주민들 지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류시키는 건 참 안타까운 점이긴 했으나 그렇

발 언 자	발 언 내 용
<p>장정구 이사</p> <p>이사장</p>	<p>다고 공사 측에서 전부 다 통과시키기에는 또 주민위원님들의 입장도 있어서 이 부분은 약간 추후에 논의를 하고. 다만 문화재단 사업에서는 그대로 넣어서 통과시키고 나중에 혹시 그거에 변경이 되면 그렇게 하는 걸 미리 또 말씀을 안 드리면 나중에 그래서 그런 걸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정말 상생협의회 하면서 어려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주민위원들과 공사 간에 작년에 여러 가지 갈등과 충돌이 있었는데 저희 드림파크문화본부, 제가 드림파크 본부장입니다마는, 드림파크본부와 문화재단과 드림파크 사업에 대한 충돌은 사실 있는 건 아닌데 공사하고 의견이 맞지 않다 보니까 주민위원님들께서 말하자면 좀 이의를 제기하고, 속된 말로 따지를 걸기에는 이게 가장 먼저여서 제가 엄청나게 몇 개월 동안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저하고는 사실 주민위원 분들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지낸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이 여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여기 이것까지도 원안대로 잘 통과시켜서 했어야 마땅하나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못 해드린 거에 대해서는, 여기 또 주민위원들도 두 분 계시고, 그런 고충이 있었다는 걸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p> <p>○ 그러면 궁금한 게 공사 사업 중에서 보류,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업이 문화축제 말고 또 있습니까?</p> <p>○ 다른 것은 별로 그렇게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이 상생기금만 주로 있어서. 다른 건 무슨 감시원을 늘인다는</p>

발 언 자	발 언 내 용
	<p>가 이런 제도적인 문제고, 주민협의회 측에서 돈을 깎을 만한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로 타깃이 돼서 고생을 했는데. 아마 나중에 주민위원장님 분들도 또 여기 이기호 운영위원장님, 진선호 이사님 다 같이 거기의 일원이시니까 많이 도와주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p>
장정구 이사	<p>○ 그런데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재단도 추경이라는 걸 하잖아요. 안 하나요?</p>
사무국장	<p>○ 추경이요?</p>
장정구 이사	<p>○ 추경, 추경.</p>
사무국장	<p>○ 추경 합니다.</p>
장정구 이사	<p>○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예 삭제를 하고 정말 필요하다고 공감의 모아졌을 때에 추경 형태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지역사회에 되게 중요한 축제인데 그런 갈등이 있다고 하면, 그게 갈등이 정당한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역사회에 알려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속내는 잘 모르지만 이 축제를, 지역의 되게 중요한 축제를 불모로 잡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니, 올해죠, 올해. 돼지열병 때문에 축제를 제대로 진행을 못 했잖아요.</p>
이사장	<p>○ 안 했지.</p>
장정구 이사	<p>○ 예.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p>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사무국장	<p>부분이 아니었는데, 이런 지역의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할 수 있게, 오히려 그런 논란이 있다고 하면 정확히 드러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정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대로 지역사회에서 의견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지역주민들이 과하게 요구하는 거라면 그 과하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드러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로 두고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거에 대한 책임은 같이 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상생협의체에 들어가신 분들이 같이 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구지역의 대표적인 축제가 이 문화 축제인데 이게 그런 갈등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역 사회에서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p> <p>○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비록 그 상생협의회에서 일단은 유보하는 걸로 그렇게 했지만 그 이후에 지금 축제가 10월에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시간적인 좀 여유가 있고. 그래 하면서 이 지금 축제 자체가 현행 지금 관계성이 좀 악화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비록 지금 유보 얘기가 나왔지만, 앞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상생협의회 주민 측 위원들께서도 지금은 그렇지만 시</p>

발 언 자	발 언 내 용
<p>이사장</p>	<p>간이 좀 흐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들이 많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을 하고 추경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넣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그 상황에 문제가 있으면 집행은 보류하면 되거든요. 그 돈이 어차피 안 들어올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 넣고서 나중에 집행 안 하는 쪽이 처음부터 삭감보다는 그래 생각합니다.</p> <p>○ 사무국장님, 우리 장정구 이사님의 그 뜻은 그런 뜻은 아니고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드림파크 이것을 한번은 주민대표 위원님들의 대다수 위원님들의 뜻이 아닐 수도 있기는 하지만 지역사회에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서 이것이 과연 다수 주민들의 의견과 일치하냐를 던져보기 위해서는 여기서 일단 예산을 제외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데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문화재단 이것은 수탁이다 보니까 이미 그런 메시지는 상생협의회에게 던져졌다. 그러니 문화재단 여기 업무추진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메시지가 던져져 있습니다. 안 던져져 있으면 지금이라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던지면 되나 던져져 있고, 여기를 차라리 통과 안 시켜서 다음에 이게 수탁 받아서 굉장히 고생하는 데인데 또 다시 막 하는 것보다, 지금 말씀하신 목적은 이미 달성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니 이것은 그냥 해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p>
<p>장정구 이사</p>	<p>○ 던져졌다라는, 전달이 됐다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p>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이사장	<p>있는 건가요?</p> <p>○ 이미 그날 상생협의회가 끝나서 여러 지역주민위원님들과 식사도 했고, 막걸리도 한 잔씩 했고, 그 이후에도 제가 또 개별적으로 몇 분 위원님들이 왔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취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미 이거는 다 메시지 전달을 했다. 여기서까지 굳이 이것을 갖고 전달할 그럴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p>
성지원 이사	<p>○ 그러면 갈등의 정도가 돌이키지 못할 정도 그 정도는 아니다. 그냥 보류해놓고 조금 계속 논의를 해나가면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p>
이사장	<p>○ 예.</p>
이기호 이사	<p>○ 이사장님, 이거 두 번째, 문화사업의 시민문화교실 운영 심의 이거는 통과됐습니까? 1억 5,000, 2억 7,800 이거는 통과된 거죠?</p>
이사장	<p>○ 나머지는 다 원안대로 끝까지 *** 안 하시니까,</p>
이기호 이사	<p>○ 그러니까 문화 사업 부분에 상생기금이 투입되는데 2, 3번은 다 결정된 거예요?</p>
이사장	<p>○ 예. 다른 건 다 결정됐습니다.</p>
이기호 이사	<p>○ 아, 그리고 1번만?</p>
이사장	<p>○ 예.</p>
이기호 이사	<p>○ 왜 저도 이게 참 저도 상생위원도 했고 우리 진 위원님과 운영위원들이 두 분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에서부터 우리 축제로서 지역, 이 돈이 다른 데 나</p>

발 언 자	발 언 내 용
<p>이사장 장정구 이사</p>	<p>가는 건 아니고. 지역의 아까도 장정구 이사님이 인천의 축제, 또 더 나아가서는 수도권, 경기·서울 이런 대단위적으로 매립지에 대한 홍보도 될 겸해서 이런 막대한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하자 해서 계속 해오던 건데, 이사장님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가 지금 협의체 쪽하고 조금 공사하고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정은 이거 원안대로 놔두고 또 시간이 있으니까 진선호 이사나 저도 이게 풀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해서. 어쨌든 간에 여기에 혜택을 보는 것은 우리도 특히 서구주민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축제기간에 인천 시민들이 많이 오는데 이걸 갖고 볼모로 삼는다는 것도 뭐하고 하니까. 하여간 예산(안)에는 이렇게 넣어 놓고 또 여기서 예산에서 뺐다 그러면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까 넣어놓고 역할을 해서 이대로 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p> <p>○ 예.</p> <p>○ 저는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상생 협의회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가 되는지 쟁점이 되는지 그 쟁점 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논의가 된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하는 거를 볼모로 잡아 논의하는 방식은 아마 지금까지 그래왔는지 모르겠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확인해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걸 결국에는 지역 주민들, 지역주민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 입장에</p>

발 언 자	발 언 내 용
<p>사무국장 이사장</p>	<p>서도 결코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단 입장에서 본다면 재단 입장에서 이 축제가 되게 중요한 행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걸 빼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많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사장님 말처럼 재고해 볼 수 있겠지만, 이게 대부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p> <p>그러면 저는 굳이 저희가 그런 걸 염두에 둔 상태에서 갈 필요가 있겠냐, 정말로 주민들께서도 아, 이게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왜냐하면 이게 자칫하면 지역주민 몇 분의 의견이 이 수도권의 대표적인 축제 자체가 흔들려 버릴 수 있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매립지 주변 지역의 상황이 풀리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것대로 그걸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그것 때문에 다른 축제가 영향을 받는 방식은 맞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p> <p>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혹시 이사회 회의록이 있으면 결정을 어떻게 내리든지 간에 회의록을 좀 남겨 주셨으면 합니다.</p> <p>○ 예. 알겠습니다.</p> <p>○ 추가로 한 번만 더 설명을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는 장정구 이사님의 그 의견에 적극 공감을 표시하는 바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이사회는 문화재단</p>

발 언 자	발 언 내 용
	<p>이사회고, 그렇다면 문화재단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떼서 다시 넣게 되면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금년에도 여기 안에 주민들의 그 먹거리장터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거 금년에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됐는데 그것을 상정해서 주민들이 불우이웃돕기라든가 마을행사를 다 준비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사를 안 하고 그것을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사 내부에 절차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결단을 내려서 소소한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들의 마을행사나 이런 연말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사장님께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면, 이게 취소됐다가 완전히 취소돼 버리면 정말 재단에서는 이제 추정도 안 되면 아무것도 할 거가 없으나, 재단에 일단 예산에 들어가 있다가 중간에 보류가 되면 당초 연초에 이사회를 통한 예산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니 핸들링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약간 넓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공사와 주민과 재단 전체를 바라볼 때는 이사님 말씀이 백번 온당하나, 우리 문화재단 입장에서를 한정해서 보면 예산을 반영해 놓는 게 더 좀, 맞지는 않지만 정식으로 공사에서 통과한 것도 아니고 이거 반영해놓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사님, 김미화 이사님.</p>

발 언 자	발 언 내 용
김미화 이사	<p>○ 예. 다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중요 사업에 왜 우리가 이끌려 가느냐 몇몇 분들한테, 그 이야기인데 서로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 드림파크 문화재단의 대표적인 사업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좀 이렇게 지역의 일이지만 그것은 서울시민들도 활용을 하고, 인천시민들도 하도, 경기도민들도 하는 진짜 이렇게 대표적인 사업인데 이 대표적인 사업을 빼라 마라, 돈을 주냐 안 주냐 이 자체를 거론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을 다른 걸로 그럼 우리가 다른 이렇게 저걸로 가능한지 이렇게 저걸 바꿀 것이니 어찌니 그것도 저는 안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왜 문제인지, 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사가 잘 안 되고 실패를 해서 이 사업을 폐지를 시키게 되면 정당한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당하지 않은 이걸로 가지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간에 이걸 그대로 간다라면 그것은 설득시키는 건 각각의 여기 문화재단과 우리 이사님들이 이해를 시키고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극단적으로 아, 그럼 *** 추경으로 하는 그것도 우리가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어 갖고 못 하면 아, 진짜 실패하고 무슨 부정적인 게 있어서 못 하는 경우가 아닌 저기에서는 저는 이걸 당연히 가야 된다고. 대표적인 사업을 어떻게 한꺼번에</p>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이사장	<p>한 번에 이렇게 버리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좀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p> <p>○ 예. 그러면 우리 장정구 이사님의 의견은 의사록에 올려서 다음에 참고하도록 하고, 이 안에 대해서는 약간의 형식적인 절차상의 약간의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p>
이사들	○ 예.
이사장	○ 예.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장정구 이사	○ 아니, 다른 거 관련된 의견 하나 좀 넣겠습니다.
이사장	○ 예, 예.
장정구 이사	<p>○ 6쪽에 보면요, 제2매립장 수림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기후 위기 시대에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사회에서 그동안 재단에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많이 홍보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여기 한계로 적으신 거에 보면, 고령의 지역주민 고용으로 효율성, 생산성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민 참여 숲 조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거고요. 저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 식목일 행사 때 좀 찾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서구에 있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인천에 각 군부별로 학교를 한두 개씩 선정을 해서, 군이 인천만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서울이라든가 경기도에 여기에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는 데의 초등학생들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식목행사를 2매립장에 하는 것이 어</p>

발 언 자	발 언 내 용
	<p>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식재하는 행사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 앞뒤로 해서 3 매립하는 현장이나 교육 이런 것들을 겸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성과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했던 걸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내년에는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p>
<p>사무국장 이사장</p>	<p>○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예. 지금 이 건설적인 의견은 의사록에 기록해서 2020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p>
<p>이기호 이사</p>	<p>○ 이사장님, 2매립장 수림대 조성비용이 19년도나 2020년 내년이나 예산이 거의 비슷하네요?</p>
<p>사무국장</p>	<p>○ 예. 그렇습니다.</p>
<p>이기호 이사</p>	<p>○ 예. 조금 증액됐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운영위원회 때도 그 얘기를 좀 강력히 했어요. 우리 *** 단인데 실질적으로 현 거기에 수목이 된 부분이 약해요. 끝났는데도 어떻게 보면 묘목도 요만한 거 갖다 심어놔서 이게 자라는 데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공사에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하기야 지반이 침하되니까 그 가운데는 큰 나무를 못 심더라도 제방에는 비용을 들여서 나무를 이렇게 숲이 우거질 수 있도록 비용을 좀 증액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19년이나 2020년도나 이게 공사에서, 이게 문화조경처에서 이 예산은 왜 이렇게 확대 못 한 거예요?</p>
<p>사무국 직원</p>	<p>○ 예. 저희가 2000년도부터 1,0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해왔었고요. 그다음에 538만 그루가 2018년까지 돼 있</p>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이기호 이사 사무국 직원	<p>습니다. 2매립장의 경우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심어져있는 나무들의 간벌이 일단 우선 시돼야 됩니다. 너무 조밀하게 심은 것들이 지금 촘촘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이 작업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신규로 이식하는 비용들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p> <p>○ 빠졌다고?</p> <p>○ 예. 그래서 지금 2매립장은 지금 안정화 공사기간도 아직 3, 4년 남아 있지만, 그래서 뽑아내서 3매립장으로 이식하는 이런 작업이 선행돼야지, 거기에 더 들어가야 될 나무들은 없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p>
이기호 이사	<p>○ 아니, 내가 그 운영회 때나 공사한테도 강력히 요구하는 게 나무 요만한 거 2매립장 쪽 3단지에는 금오동 쪽, 오류동 쪽으로 좀 약해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잡아서 충분히. 지반 침하되기 위해서 꼭 상단에다 하라는 건 아니고, 단단히 미세먼지나 모든 지금 환경이 열악해요, 솔직히 오류동 쪽 그쪽이. 그러면 그런 데다 좀 간벌해서 3매립장으로 갈 게 아니라 그런 나무 어느 정도 수목을 2매립장에다 큰 것들을 간벌을 한다면 그게 바로 2매립장에 올라가고 3매립장 쪽으로 가 줘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 나무 크지도 않은 거 이렇게 밀식된 거 뭐 이전하는 건 맞겠지만 그런 비용을 좀 더 확보해서 재단에서 넘겨주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인천시 50% 막대한 돈을 가산금을 가져가면서 주민들에게 행정복지타운 같은 데</p>

발 언 자	발 언 내 용
	<p>건립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데 써야 될 게 아니라 인천시한테도 얘기해서 여기에다 나무 한 그루 더 심을 수 있는 이런 안들을 잡아서 올려주세요. 그럼 우리 재단도 좋잖아요. 그것은 서로 윈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p>
진선호 이사	<p>○ 이기호 이사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저희 주민대표들이, 문화축제 아까 장정구 이사님 말씀 잘하셨어요. 앞으로 빠지지 마시고 잘 나오셔서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셔야 되는데. 이유가 그거예요. 이 문화 축제가 우리 주민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사에서 예산을 잡고 해서 처음부터 시작이 공사 돈으로 예산이 서 갖고 계속 공사에서 이 행사를 다 했던 거예요. 예? 골프장 수익금이 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공사에서. 환경 쪽으로 재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자꾸만 줄이는 거야. 줄이고 지금 이번에 행사하는 게 11억 얼마 하죠?</p>
사무국장	<p>○ 대략 11억입니다.</p>
진선호 이사	<p>○ 예. 공사에서 5억 7,000을 대고, 우리가 7억 얼마를 대는 거야.</p>
사무국 직원	<p>○ 골프장 수익에서 나온 거를요?</p>
진선호 이사	<p>○ 예.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그런 거지, 공사에서 다른 데서 아끼더라도 환경적인 거나 행사 쪽에는 아끼지 말라는 거지. 공사에서 다 하던 것을 골프장 수익금액, 우리 지역주민들 위해서 골프장 수익금 다른 데 쓸 용도도 많아요. 한정되게 거기만 그렇게 투자하지</p>

발 언 자	발 언 내 용
<p>사무국 직원 이사장</p>	<p>말라는 거지. 아까 우리 이기호 이사님이 말했듯이 환경 쪽으로 수림대공사라든가 그런 쪽을 원하는 거지, 주민대표들이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공사에서 하던 것을 여태까지, 당신들 5억 7,000 내놓고 우리가 상생에서 7억 넘게 내놓는데 주민 행사에 왜 자기들이 생색을 내냐 이거지. 그렇게 지금 말이 나오는 겁니다.</p> <p>○ 예. 그것은 다시 한번 펴보겠습니다,</p> <p>○ 다들 이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오프더 레코드로 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가 인천시의 부시장님을 만나서 전체공사와 상생기금으로 20억 정도 넘게 들어가거든요, 개방을 할 때. 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데 제가 강하게 공원 개방을 못 하겠다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사장님이고 감사님 상관없이. 그래서 결국에 그게 조정이 돼서 따온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따온 거예요, 특별히 말씀하시니까. 공사에 하는 건 우리 진선호 위원님 말씀이 주민위원 측에서 보면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공사도 예산에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 여기서는 그것까지는 논의하기에는 조금 너무 광범위해지는 것 같습니다. 양쪽 입장이 다 맞습니다. 우리도 지금 돈이 없어요. 또 주민 측에서는 맞는 말씀이고.</p> <p>그래서 이 안전은 이 정도로 해서 여러 의견 잘 들어서 의사록에 잘 기재해서, 특히 수림대조성 부분 또는 주민위원들의, 일부 위원들의 좌지우지 이런 것에 대한 거는 공사에도 건의하고, 상생협의회에도 건의하</p>

발 언 자	발 언 내 용
<p>이사장</p> <p>사무국장</p>	<p>고, 우리도 문화재단에서도 거기에 현명하게 잘 대처 해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p> <p><의사봉 3타></p> <p>○ 다음 안건 의안번호 제2019-13호 신규이사 선임(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신규이사 선임(안)에 대하여 사무국장이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p> <p>○ 선임 이사 임명 선임의 건입니다. 돌아가신 황홍석 이사장님 이후에 재적이사 1명의 계속되는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원 이사 1명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관 규정에 따라 임원 추천을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진행해서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래서 위 추천된 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격사유를 살펴보니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불임에 추천된 분으로 이사 선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p> <p>불임 보시면, 추천된 선임 이사 후보자 약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은 전병성이시고요.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55년생이시고요. 경력을 보시면, 작년까지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을 역임하셨고, 제8대 기상청장, 특히 환경부의 자원순환국장을 역임하실 때 우리 재단 설립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프로필을 참조하시고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p>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이사장	○ 신임 이사 선정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호 이사	○ 이거 공고해서 뽑으신 건가요?
사무국장	○ 공고가 아니고요, 이사님들 추천방식으로 했습니다.
진선호 이사	○ 추천방식으로 했다고요?
사무국장	○ 예.
이기호 이사	○ 그 메시지 들어왔던데요?
사무국장	○ 그렇습니다.
이기호 이사	○ 예. 추천하라고.
김미화 이사	○ 지금 이사로 이렇게 선임하는 게 지금 안전인 거죠?
이사장	○ 그렇죠. 예.
사무국장	○ 그렇습니다. 이사 선임하고 나서 이사 중에서 이사장님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김미화 이사	○ 그러니까 이사는 사실은 공고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이사장	○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 권고나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진선호 이사	○ 아니, 단순 이사 같으면 내가 권고 얘기도 안 하겠지만 이사장으로 내정해서 오시는 분인데 내가 얘기해 봐야 혼자서 지랄해 봐야 되지도 않고 빨리빨리 정리 하고 하십시오.
이사장	○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사들	○ 예.
이사장	○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p data-bbox="491 1951 735 1995"><의사봉 3타></p>

발 언 자	발 언 내 용
	<p>제가 임기가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직 이사로 왔는데 이사장으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임기가 불안정한 사람이 계속 이사장을 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단 발전이나 업무의 지속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저는 금년 12월 31일로 사임하는 것으로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정비하고 하느라고 수고해주신 사무국 직원들과 또 거기에 적극 응해서 안전들을 잘 심의해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p> <p>이상으로 드림파크문화재단 제57회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p> <p><의사봉 3타></p>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